

국가발전을 위한 규범과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1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와 교수학습개발센터(CTL)는 공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규범과 인성교육'이란 주제로 5번의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명예교수협의회는 사회 원로로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고, 먼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CTL과 협력하여 집담회를 기획하였다.

평생을 바쳐 우리 대학의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왔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들을 양성해 온 명예교수들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 교육의 잘못을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집담회의 핵심 주제를 '인성교육'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예교수협의회를 뜻해서 때마침 동원그룹 육영재단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게 되어 집담회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 인 규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명예교수협의회 수석 부회장

제1회 집담회-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첫 집담회는 2015년 5월 18일 대학 도서관 관정관 페컬티 라운지에서 열렸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진교훈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인성교육의 학문적인 기초를 역사적으로 개관해 주었다. 본 집담회의 기획 단계에서 집담회의 목적을 명예교수들의 자기 성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반 교수나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보다는 명예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20-30명의 제한된 인원이 모여 주제 발표와 자유 토의의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CTL의 협력으로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제2회 집담회 - 도덕사회 구현 - 이렇게 하면 된다.

제1회 발제를 통하여 인성교육의 이론적인 배경을 검토하였지만, 이 주제는 실천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고자 두 번째 주제를 ‘도덕사회 구현 - 이렇게 하면 된다’로 정하고 퇴계학 연구원의 이 용태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주었다. 퇴계학 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간 일선 중, 고등학교와 군대 사회를 대상으로 펼쳐 온 인성교육 실천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고 그 실천 운동이 서울대학교를 시발점으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들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가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제3회 집담회 - 인성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때마침,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위한 인성교육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이 문제가 사회의 공론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입법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동참하였던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정 창우 교수가 발제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제3회 집담회는 ‘인성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날은 교육부의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여 정부가 인성교육법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실천 방침에 대한 전망도 소개하여 세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제정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다.

제4, 5회 집담회 - 새로운 사태, 새 질서, 그리고 인성교육 교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달 것인가?

원로교수들의 시각에서 본 인성교육의 본질은 전통적인 윤리관에 입각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젊은 세대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 인성교육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CTL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남녀 각 2명씩 4명을 선발하여 차기 집담회 토론자로 초청하였다. 제4회 집담회는 ‘새로운 사태, 새 질서,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경영대학 경영학과 최종태 명예교수가 발제해 주었다.

한편, 인성교육 문제가 광범위한 범질서와도 연관됨을 주장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회 집담회는 ‘교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주제로 법과대학 법학부의 최대권 명예교수가 지난 집담회들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이를 범질서 확립 차원에서 재조명하였다.

인성교육 집담회의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인성교육 집담회는 이처럼 5회에 걸쳐 이루어진 논의들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국가발전을 위한 규범과 인성교육’이라는 주제가 시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무게와 그 중대성을 절감한 명예교수들은 이 논의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2016년에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6회 집담회는 인문대학 철학과 황경식 명예교수에게 발제를 의뢰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집담회의 성과를 종합하며 그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담론이 우리 명예교수들을 뛰어넘어 현직 교수 사회와 재학생들에게,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론화 되어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CTL과 협력하여 인성교육 집담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의 교수들에게 인성교육의 개념, 교육 내용 및 전략 등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집담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 우리 나라의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가는 큰 횃불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